

# 생활불교 이끈 '신행 나침반'

## 독자와 함께한 현대불교 6년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현대불교신문이 창간된지 6년이 지났다. 그간 현대불교 신문은 사시의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창간 당시에 내세웠던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이란 모토를 "꼭 필요한 신문"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같은 평가는 국내외 독자들이 한결 같이 내놓는 것이어서 현대불교신문이 더욱 정진하는 저변의 힘이 되고 있다.

현대불교 신문은 지난 6년간 한결 같이 독자와 함께 호흡해 왔다. 부처님 법을 홍보하는 포교사로서, 불교의 내일을 개척하는 선구자로서, 생활속의 수행을 선도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위해 현대불교 사육은 밤낮으로 불이 켜져 있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후 줄곧 불자들의 의식개혁과 참다운 신행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창간 이듬해인 95년에는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란 주제의 캠페인을 통해 참불자의 길을 제시했으며 '우리는 불자 가정' '나와 이웃과 지어주는 하나'라는 스티커를 보급,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스티커는 전국 불자 가정의 대문과 차량 등에 30여만매나 부착되었다. 이 밖에도 95년에는 '맑고 향기롭게'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겨레의 열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캠페인도 벌였다.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해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고자 기획된 '천원 법보시 운동'은 현재까지 11만명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96년에는 '새싹 불자를 키우자'는 슬로건으로 각종 캠페인과 기획 기사를 지면에 펼쳤으며 97년에는 참다운 불자상 정립을 위해 '참회의 삶 살자'는 운동을 벌였다. 98년에는 '작은 실천 큰 기쁨'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상을 통해 기여했으며 99년에는 '한국 불교 이것부터 고치자'는 실천운동을 통해 교계 각 분야의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새천년을 맞아 현대불교는 '사이버 시대 막차라도 타자'는 캠페인을 통해 정보 사회에 불교가 적응해야 할 과제들을 세밀히 진단했으며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실천 운동도 전개해 불자들의 내적 자각과 희망적인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캠페인과 아울러 현대불교신문은 각종 신행체험과 문화 행사도 벌여 왔다. 95년 10월 창간 1주년을 맞아 5대 총림 방장 스님들을 친견하는 행사를 거쳐 선지식의 사자후를 듣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97년

문화유산의 해에는 매일 불교테마기행을 실시해 사찰이 내포한 그윽한 문화전통을 맛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 해에는 불교 문화체험학교를 더욱 고안된 문화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들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독자와 함께 한국불교의 선맥을 찾아 구산선문의 역사와 사상을 배우고 참선을 체험하는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실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문화행사는 99년 2월의 문화인물 해초스님을 기리는 참작교성곡 '해초'를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다. IMF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졌던 98년에



◇미래의 불자를 키우기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참선·사경 등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에는 매년 2백여 어린이들이 동참한다. 사진은 지난 7월 개최한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모습.

## 해마다 불자 신행수기 공모 시상 98년 국난극복법회 IMF극복 동참 인터넷 포교 등 불교정보화 선도

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불자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으며 그 실천의 일환으로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를 전국 각지에서 8차례 나 개최했다. 이어 '생명나눔 실천대법회', '소속새 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희생성 관절염 무료 수술' 등을 통해 일체중생이 한 몸임을 자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99년 5월에는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을 조폐공사와 공동 제작 보급해 고승들의 법향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행사도 꾸준히 전개해 왔다. 94년에 창간을 기념해 '소년소녀 돕기 대행큰스님 부산대법회'를 개최한 이후 전국 306개 초중 고교에 대승용 미륵반가사유상을 보급했다. 해마다 부다피아 여를 어린이 캠프를 열어 새싹 불자들의 건강한 신심을 함

불교의 참모습을 가상공간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부다피아는 그 이름처럼 부처님의 땅을 사이버 세계에 실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 최초의 불교전문 사이버 일간지 '부다뉴스'의 일주문을 열기도 했다. 또 현대불교 신문사가 운영하는 책방 여시아문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은 온라인 불교서점 '여시아문'도 창간 6주년을 앞둔 지난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의 각계각층의 독자들이 보내주는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현대불교신문은 늘 새로운 추구를 하고 있다. 지난 것을 버리는 새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불교의 역사를 창출하는 새로움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지면에 담고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 창간 6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의 각오다.

## 균형시각 냉철비판 기대

김규철(불교방송 사장)

'현대불교'는 그 동안 맑고 향기로운 신행미담의 글들을 많이 실어 불자들이 바른 신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또 21세기 국제화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해외불교를 소개하는 등 신선한 기획도 많았다. 그러나 일반신문이 아닌 전문지임에도 행사 위주 기사가 많았고, 보수·진보적 양 경향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의 냉철한 비판을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미흡한 점이 느껴진 경우도 있었다.

바깥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불교인문매체도 이러한 변화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급진적인 변화와 발전에도 발을 맞추



어야 하고, 불교라는 영원한 보편적 진리의 상(相)에서 언제나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려면, 오늘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오늘의 언어와 형상 속에 교정의 진리를 훌륭하게 담아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불교전문지지만 만큼 일간지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전문성을 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름 그대로 현대적인 불교인문매체로서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한다면 현대적인 문제상황, 현대인류와 현대국가, 현대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모색의 과정에 불교의 재조명을 통한 방향제시라든가 사색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불교 전산화 방향 선도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장)

창간과 함께 불교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국불교계가 전자정보시대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길을 열어 온 현대불교신문의 눈부신 활약에 교계의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연구소로서는 든든한 동지들을 만난 기쁨을 느껴왔다. 요즘 전산화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장경 전산화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시키기도 벅했던 시절이다. 그동안 전산화 관련 불사에 대한 심층보다는 판넬대장경 전산화 불사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현대불교신문에서 다른 전산화 관련 기사는 사이트 오픈, 연구소 개원, 다른 종교계의 전산화와의 비교, 사이버 웹툰 등에 할애해 왔다. 다시 말해 불교계 전산화는 거대한 흐름에서 마치 나무만을 보는 것과 같이 특정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셈이다. 따라서 불교계의 전산화와 관련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이에 다른 언론과 불교계가 쫓아 오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거대 담론이란 전산화의 흐름을 꿰뚫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교계 전산화 기술이나 방식 그리고 기구와 같은 틀을 통일하는 문제에 좀더 앞장서기를 부탁하고 싶다.

## 보는 신문등 차별화 편집

김병규(前 문화일보 편집국장)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직후부터 취재, 편집, 지면배정 등 신문제작의 필수요건을 재빠르게 개선하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의 '밀레니엄 종교지도자 세계 평화선언'을 전문 보도한 것이 그 한 예다. 교계언론 가운데 '현대불교'만이 유일하게 돋보이는 보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는 하나의 조그만 예이지만, 이런 보도들이 사부대중에게 주는 영향과 독자들에게 남기는 인상은 자못 크다. 특색 있고 독창적이며 차별화 된 신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거대 신문으로 발전하는 동기가 쌓이게 된다. 차별화 되지 않는 신문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상황이다. 이렇게 독보적 지위를 만들어 가는 교계신문으로서 흠



잡을 데가 없지만 몇 가지 점을 감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비주얼(보여주는) 편집을 늘리도록 권하고 싶다. 사진을 과감하게 쓰고 헤드라인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면의 헤드라인은 종단기에서 탈피해 가능한 한 기획 기사를 채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포포와 뉴스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기사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맞춰 편집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셋째, 비구니나 우바이 즉,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기사를 지금보다 좀더 많이 보도해 달라고 사부대중의 모두 계층을 두루 섭렵하는 교계 언론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 넷째, 제작진이 우수해야 된다. 기자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를 남남의 사안에 투영해 분석해 창조성이 결집된 기사를 작성토록 권하고 싶다.

## 문화기사 가치평가 반영

문명대(동국대 교수·미술학)

불교 문화·문화재에 대해 교계 언론은 비교적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도나 가치 등의 평가에서는 아직도 일정한 판단 기준이 서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불교 문화의 경우 불미전이나 불교음악 등 불교 예술에 대한 갖가지 행사에 대해서 그 비중이나 의의 등을 제대로 평가, 그 비중에 따라 게재 정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술발표나 서평 등에 대해서도 그 중요도를 엄정히 평가하고 선별한 후에 심층 기사화하기를 바란다.



불교문화재의 발굴과 발견에 대한 기사 또한 편파적으로 게재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불교문화재일 경우 진위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일이며 가치나 의미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굴에 대한 기사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계의 전문가 1~2명의 코멘트를 반드시 게재해야 할 것이다. 근래 일간신문에서조차 이런 절차가 생략되는 경향이 농후하여 시행착오가 되고 있다. 불교문화·문화재의 정론을 향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먼 우리 불교계를, 창간 6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이 진취적으로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

사름다듬과 건강을 위한 채식

# SM 채식 뷔페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음이 영혼에 미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몸과 마음을 구하는 100% 완존 채식 뷔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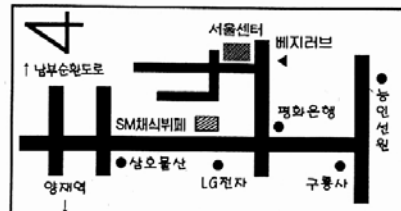
•No계란 •No동물성 •No오신채 •No화학조미료

**결혼·개업·환갑·생일**  
40인 이상 15,000원 40인 미만 20,000원

밀까스, 연자죽, 캔터키콩고기, 탕수육배배구, 순수채식 김치, 육계장 등, 콩으로 만든 각종 고기맛 요리 포함

점심/저녁 식사 10,000원 (도시락 동일)  
출가자/10세 이하 5,000원

월요일 - 토요일 (점심 11:30-2:30, 저녁 6:00-9:00)



**베지러브 오픈!!** (채식 베이커리, 채식재료 전문점)  
채식빵, 햄버거, 샌드위치, 케이크, 만두, 피자, 햄, 라면 등 채식인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전화: 02)577-5749)

뜻대로 사는길

# 아바타 합동코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국내의 많은 아바타 마스터들이 함께 하는  
아바타 합동 코스가 열립니다.

당신은 먼 길을 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깨어나길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갈등과 고통·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9일간의 시간으로  
당신 자신에게 생애최고의 선물을 산겨 주십시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주 관 김희균 마스터, 소정 마스터  
일 시 2000년 10월 21일 ~ 29일(8박 9일)  
장 소 용인 원불교 등지골 수련원  
031)332-3772  
참가비 160만원(숙식비 20만원 별도)  
신청마감 10월 18일  
신청 및 문의 김희균 02)396-2736, 016-228-2358  
www.avatarcenter.co.kr  
소정 016-575-2741  
www.avatar@sjavatar.pe.kr

모든 분들이 깨어나길 사량으로 염원하며 아바타 마스터/위저드 김희균·소정 두 분 모음